

# 스포츠는 내 친구

10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 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동아 공동 기획(3)

학교체육진흥회와 스포츠동아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스포츠기자단'을 운영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 스포츠기자단은 다양한 학교 스포츠 활동 및 일반 스포츠 관련 소식을 취재해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체육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학생 스포츠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선별해 매월 1회 지면을 통해 게재됩니다.



'바른인성과 창의적 인간육성'을 리드하는 인천체고의 학교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새로 마련된 수영장의 웨이트레이닝장. 사진 | 정단비

## 전국 체고 중 대학진학을 1위 운동·학업 병행하는 인천체고

신재현 교장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이 목표"



신재현 교장

1976년 개교한 인천체육고등학교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 아래 16개 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건강한 인간 육성을 위해 중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신재현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인천체고만의 자랑거리는?

"첫 번째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체육고등학교 중 대학진학을 1위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체육인재 육성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체육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전국에서 교내에 재할치료를 구축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우리학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기구는 크라이오테라피 치료기 및 최신시설의 웨이트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은?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천체고에 대해 긍지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신입생들은 한 북 교복을 입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높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입학 후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선수는 전체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2회 이상 진로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진로탐색을 통해 꿈을 가진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독교사, 운동부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운동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교과 선생님들은 학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했는데요.

"기숙사 환경 개선이 우선이었습니다. 내부도색을 하고 방마다 도배, 암막 블라인드 설치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냉방고, 욕실수납장, 비데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휴게실과 소규모 모임이나 토론 공간, 공부방 3곳을 만들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필드에 천 연잔디를 식재했고, 투포환장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장 바닥공사와 부족한 기구들을 확충해 최고의 트레이닝장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코로나 검사를 잘 받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줘 '안전한 학교'가 된 게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숙원사업인 자체 차량 4대를 확보한 것과 여름철 수영장에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냉각기를 설치하기 위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 보도블록이 깔려있던 농구장을 최신식 농구장으로 바꾸게 된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정단비 학생기자·인천체고2



미국 데이비스대학의 한국 NCAA리거 이현중(오른쪽). 슛 능력이 뛰어난 이현중이 한국인 2호 NBA리거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 | 데이비스와월드캐츠닷컴

## 데이비스 대학 포워드 이현중 한국인 2호 NBA 진출 탐방을

평균 13.5점 슛 능력 무기...피지컬·수비는 약점

데이비스 대학의 이현중이 뛰어난 활약으로 관심을 받으며 17년 만의 한국인 NBA 리거 탄생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이현중은 미국 데이비스대학의 포워드로서 20/21시즌 평균 득점 13.5점, 180클럽(야투율 50.8%, 3점 슛 성공률 44.2%, 자유투 성공률 90%)을 달성했다. 이렇게 좋은 슛 기록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현대 농구에서는 좋은 슛 능력을 가진 선수의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현중의 피지컬과 수비 능력, 소속 대학의 경쟁력은 약점으로 꼽힌다.

현대 농구에서는 3점 슛 능력을 비롯한 득점력도 중요하지만 빼어난 수비력도 두루 갖춘 3&D 선수들의 가치가 높다. 이현중은 3&D 선수가 되기 위해선 약한 피지컬에서 비롯된 불안한 수비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데이비스 대학의 위치도 이현중의 NBA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NBA 드래프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NCAA 토너먼트다. 데이비스 대학은 토너먼트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팀으로 평가받는다. 이현중과 같은 컨퍼런스인 A10 컨퍼런스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활약하던 와타나베 유타도 비슷한 사례였다. 주장을 겸임하며 A10 컨퍼런스 최고의 수비수에 선정됐음에도 드래프트에서는 지명 받지 못했다.

이현중이 다가오는 시즌에 지금과 같은 좋은 슛 감각을 유지하며 피지컬과 수비 능력을 개선한다면, 제2호 한국인 NBA 리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석민 학생기자·성일고2



파리 생제르맹 메시(가운데)가 9월 29일 벌어진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2번째 골을 뽑아낸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적 후 그의 첫 골이다. AP뉴스

## PSG 이적 4경기만에 데뷔골 메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UCL 2차전 썬기골...팬들의 의구심 날려

드디어 터졌다. 리오넬 메시가 골망을 힘차게 흔들며 새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골이자, 자신의 이적 후 데뷔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PSG는 9월 29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1-2022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메시의 썬기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2-0으로 제압했다.

PSG는 지난 16일 브뤼헤(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조별리그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 동시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쟁취했다.

경기 초반 맨시티가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골망을 흔들 여보려 했지만, 경기 시작 8분 만에 이드리스 케예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았다.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은 케예가 원발로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는 PSG를 계속 압박하여 추격 골을 노렸지만 쉽게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추가골은 메시의 몫이었다. 메시는 음바페의 힐 패스를 받아 그림같이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은 메시가 지난달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나 PSG 입단 이후 4경기 만에 나온 데뷔골이자 챔피언스리그 통산 121번째 득점이다. 앞선 공식전 3경기에서 침묵하며 팀 적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팬들의 의구심을 한 번에 날렸다.

메시가 다음 상대인 라이프치히(독일)전에서 득점포가 가동될지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김태형 학생기자·한광고2



프로야구 등 전통스포츠의 경기시간이 길어 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경기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KBO리그. 스포츠동아DB

## 긴 경기에 감소하는 스포츠 팬 야구·축구계 시간 단축 움직임

"야구 7이닝으로 바꿔야"…MLB 커미셔너 주장

'e스포츠'라고 불리는 게임 산업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리그오브 레전드(이하 LoL)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LoL 대회 시즌평균 국내 동시시청자 수는 약 16만 6000명, 하루 최고 동시 시청자수는 30만 명, 하루 평균 순 시청자수는 403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전통 스포츠 산업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의 관중 수는 2017년 840만 명, 2019년에는 728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기시간이다. 축구나 야구 같은 전통스포츠는 e스포츠에 비해 경기시간이 길다. 축구는 90분, 야구는 3시간 이상 경기가 이어진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내심은 점점 더 떨어진다.

전통 스포츠 산업은 생존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MLB는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립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이전부터 "야구를 7이닝 경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는 "젊은이들이 경기를 보지 않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를 짧게 해야 한다"며 경기 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에게 닥친 환경도 예전 같지 않다. 전통 스포츠에 대해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공도원 학생기자·이우고1



SSG 추신수(오른쪽)가 5일 잠실 LG전에서 2점홈런을 뽑아낸 뒤 전형도 주루코치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신수는 선행으로 야구팬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2군에 4000만 상당 장비 전달 새 문화 전파하는 추신수 선행

SSG 동료들에겐 시계·타월·슬리퍼 등 선물

메이저리그에서 16시즌 동안 활약했던 추신수(39)가 올 초 연봉 27억 원에 SSG 랜더스에 입단했다.

메이저리그 아시아선수 최다 홈런과 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그였기에 주변의 기대는 작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성적은 아쉬운 수준이다. 24경기를 남겨둔 9월 26일 현재 추신수는 타율 0.255, 18홈런, 19도루, 출루율 0.389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그는 KBO리그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3월 SSG에 합류한 그는 자신에게 등번호 17번을 양보한 후배 이태양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 이전에도 LG 트윈스로 이적한 정근우의 '지갑 선물'이 있었으나, 추신수의 '시계 선물' 이후 KBO리그의 등번호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7월 그는 직접 전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트레이너들에게 스포츠타월 200개를 깜짝 선물했다. 무더운 여름날 동료들을 위한 그의 마음이 돋보이는 선행이었다.

8월에는 1·2군 선수단 전원에게 GOALSTUDIO 그래픽 태블릿을 선물했다. 9월 23일에는 퓨처스(2군) 선수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선물하기도 했다. 또 KBO리그 복귀 당시의 약속이었던 10억 원 기부를 지켰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선수의 선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추신수. 그는 이미 자신의 연봉 27억 원 이상의 가치를 경기장 밖에서 증명하고 있다.

신중혁 학생기자·대인고1



3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용인미르스타디움. 볼링장 등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더 많이 건설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 | 용인시

## 시민 위한 시설 여전히 부족 갈 길 먼 용인 미르스타디움

3100억 들여 2017년 완공...볼링장 등 아직 없어

2018년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용인미르스타디움이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용인시가 미르스타디움을 만들 당시 내걸었던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가 처음 미르스타디움 건설계획을 세운 것은 2011년이다. 이후 계획이 계속 무산되다가 2010년에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당초 완공년도를 2013년으로 잡았지만, 4년이나 늦어진 2017년에 완공해 이듬해부터 문을 열었다.

공사비용으로 무려 3100억이나 들었지만, 기존 계획에 있던 부경기장, 볼링장 등 용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예 지어지지 못했다. 용인시가 새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대표 평가전 몇 차례와 경기도 체육대전 등이 치러진 것을 제외하면, '스타디움'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장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변 도로에 자전거 길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시민구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또 구장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2021년에는 부경기장, 수영장의 추가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체육시설의 모습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추가 시설들은 계획 단계다.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용인시민들은 미르스타디움이 시민들의 든든한 체육시설로 탈바꿈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건 학생기자·이매고2



아침축구를 즐기는 성남외고 2학년 김경민(왼쪽) 서상호 군. 체력증진과 추억쌓기로 시작된 두 고교생의 아침축구가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사진 | 안세현

## 축구로 체력 키우고 추억 쌓기 성남외고 아침을 바꾼 두 남자

2학년 김경민·서상호 군 주축으로 12명 참여

성남외고의 아침은 축구공 소리와 함께 밝는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축구공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2학년 남학생들이다. 중심인물은 영어과 김경민, 일본어과 서상호다. 체육관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축구를 향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 축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경민=원래는 나와 상호 둘이서 아침마다 축구를 했다. 그걸 본 다른 친구들도 합류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아침 축구를 하는 목적과 진행방식은?

▲경민=우선 표면적 이유는 체력증진을 들 수 있었고, 사실 실질적 이유는 다함께 추억을 쌓고 싶어서 하는 것이 크다. ▲상호=원인은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6대6 풋살 형식으로 운영한다.

-아침축구를 하면서 생긴 변화와 힘든 점은?

▲경민=그 전에는 1교시에 무조건 자거나 졸린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침축구를 시작하고부터 1교시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부족한 체력으로 인해 자꾸 오는 일이 많이 줄었다. ▲상호=일어나기 힘든 것만 빼면 전부 재밌고 좋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상호=다들 아침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체육관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하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경민=같은 의견이다. 다같이 아침에 운동하는 문화가 잘 형성됐으면 한다.

안세현 학생기자·성남외고2